

경인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Relations among the Decision Making Style,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Visiting Nurses

김은주*, 임지영**, 최경원***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한북대학교 간호학과***

Eun-Joo Kim(kimeju0409@sj.ac.kr)*, Ji-Young Lim(lim20712@inha.ac.kr)**,
Kyung-Won Choi(blue1456@hanbuk.ac.kr)***

요약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구사정에서부터 중재, 평가에 이르기까지 간호제공의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방문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유형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방문간호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어 온 바 방문간호사가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 중심어 : | 방문간호사 | 의사결정유형 | 셀프리더십 | 의사소통 능력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 among the decision making style,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visiting nurse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219 people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mong the visiting nurses who worked in the 28 community based health care centers. The most frequent decision making style of visiting nurses was a rational style. The scores of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visiting nurses were also showed the highest score when the visiting nurse had a rational decision making style. The statistical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he decision making style,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ful to develop job-training programs for visiting nurses to enhance their problem-solving abilities. We suggest more various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the visiting nurse's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ill be implemented and refined protocols according to situations will be developed, too.

■ keyword : | Visiting Nurses | Decision Making Style | Self Leadership | Communication Competence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질병양상의 변화로 인해 향후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되며 이는 대상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가 국가 전체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3].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가정방문간호는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와 같이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 중 공공보건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의 방문보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 단위로 건강문제를 사정한 후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질병관리 및 간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개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건소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이 수요자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건강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의 직접 수행자인 방문보건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 확대 그리고 윤리적 직업관 확립 등을 통해 확고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 필수요건이다[3][4]. 방문보건인력은 수요자인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접하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므로 방문보건사업의 핵심 요소이다. 방문보건인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방문보건 전담인력의 부족, 방문보건인력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부재, 방문보건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방문보건서비스 간의 질적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3][4].

업무의 대부분이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병원과는 달리 방문간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이라는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다각적인 상황에 노출되며 각 상황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

다. 또한 대상자에게 맞는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Jung은 방문간호사의 업무 수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직접간호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방문보건사업의 특성은 방문보건인력으로 하여금 직접간호 수행 시 매우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5].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들이 의사소통과정에서 상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지식이다[6][7].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만족시키고 질병회복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업무의 효율성 뿐 아니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도 높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는 일반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8],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9] 등과 같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방문간호사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와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더불어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일차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직접적으로 방문보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질적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에 방문보건인력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과 유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 유형으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우수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또한 셀프리더십도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1]. Manz와 Sims는 셀프리더십이 주어진 상황에서 장애요인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회요인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사고

유형을 확립하도록 한다고 하였다[12].

이상과 같이 방문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한다.
- 2)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3.1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유형은 특정한 상황 또는 장차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상황으로부터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목표를 선택하고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 가운데 특정한 수단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방법의 분류를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Harren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검사를 Ko가 번역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의 3 유형으로 분류된다[13][14].

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셀프리더가 되기 위하여 자기목표설정, 리허설, 자기비판, 자기보상, 자기관찰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표현하는 행위전략과 자신의 일에서 생각의 초점을 관리하여

자연적 보상측면을 생각해서 일의 즐거운 생각을 집중하고 어떠한 장애 요인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회요인을 찾음으로써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관리하는 인지전략의 변수를 말한다[12]. 본 연구에서는 Manz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Kim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15][16].

3.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잘하는가를 말한다[17]. 본 연구에서는 Navran이 부부의사소통 검사를 위해 개발한 PCI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Choi에 의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방문간호사에게 해당되는 용어로 변경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18][19].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경인지역 28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경인지역 28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전체를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연구에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 표출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의사결정 유형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검사를 Ko가 번역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13][14]. 이 의사결정 유형검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하위 척도 각각에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의사결정유형 척도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해석하였으며 첫 번째는 각 유형별 점수를 0-40점 분포를 가지는 연속변수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는 세 유형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유형을 명목변수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Ko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8-.84, 반분신뢰도 .77-.83으로 나타났으며[14],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각각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75,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69,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78로 나타났다.

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가 개발한 도구를 Kim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15][16]. 도구는 총 18문항, Likert 5점 척도(항상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3.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Navran이 부부 의사소통 검사를 위해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Choi에 의해 수정 보완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18][19]. 도구는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항상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먼저 경인지역 28개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

리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전체 268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의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수 시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23부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것은 총 219부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윈도우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1(±8.83)세이었다. 41-50세가 87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가 79명(3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1명(0.5%)이었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189명(86.2%)이 기혼자였다. 종교는 150명(69.2%)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총 170명(78.2%)이 전문대학을 졸업하였으며 3명(0.9%)은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연령(year)	21-30 24(10.7)
	31-40 79(36.3)
	41-50 87(40.0)
	51 and over 29(13.0)
	M(±SD) 40.1(±8.83)
성별	남성 1(0.5)
	여성 218(99.5)
결혼상태	기혼 189(86.2)
	미혼 30(13.8)
종교	있음 150(69.2)
	없음 69(30.8)
교육수준	전문대 170(78.2)
	간호학과 46(20.8)
	대학원 39(0.9)

2.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9명 중에서 182명(83.3%)은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19명(8.9%)은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18명(7.8%)은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각각 파악되었다[표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전체 평균 3.72(±0.51)점이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은 3.84(±0.45)이었다.

표 2.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변수	빈도(%)	평균(SD)
의사결정 유형	합리적 182(83.3)	23.36(±3.56)
	직관적 19(8.9)	26.64(±3.24)
	의존적 18(7.8)	29.56(±2.94)
셀프리더십		3.72(±0.51)
의사소통 능력		3.84(±0.45)

3.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3.78±.52)이 가장 높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3.50±.3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F=1.780, p=.171).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의사소통 능력은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3.89±.42)에서 가장 높았으며,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3.58±.49)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714, p=.004).

표 3.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변수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F(p)
셀프리더십	3.78 (±.52)	3.50 (±.38)	3.64 (±.48)	1.780 (.171)
의사소통 능력	3.89** (±.42)	3.58 (±.49)	3.71 (±.51)	5.714 (.004)

* scheffe 검사결과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음.

4.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의사결정 유형과 셀프리더십 간에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r=.24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련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 간에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r=.31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r=-.229, p<.000)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r=-.182, p=.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의 상관관계

변수	의존적 r(p)	직관적 r(p)	합리적 r(p)
셀프리더십	-.118(.070)	-.035(.593)	.249(.000)
의사소통 능력	-.182(.005)	-.229(.000)	.314(.000)

IV. 논의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은 83.3%가 합리적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8.9%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7.8%는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을 조사한 Kim, Lim과 Choi의 연구에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59.1% 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인 결과에 비하면 매우 높은 분포였다[20]. 개인의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 들 가운데 자신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진다[21]. 또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 또는 정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13]. 합리적 유형은 확장된 시간조망 내에서 연속적인 결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다. 즉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문제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결정되어진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대상자인 방문간호사들의 평균연령은 40.1세였으며 임상경력자가 대다수였으며 또한 기혼자가 86.2%로 다양한 상황과 위기에 노출되었던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고려된다.

방문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3.72(±0.51)점이였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고와 행동 전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조직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리더십 개념이 아닌 개별적 차원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업무의 프로토콜과 업무양이 결정되어 있으나 접촉하는 개별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들

에게 셀프 리더십은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Park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을 연구한 조사에서 교사들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67(±.46)점이었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논의하고 있다[2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조사한 Park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57점이였다[23]. 즉 방문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간호사들은 매일 각각의 대상자별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내부로부터 목표와 계획을 주는 내적 리더십인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방문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3.84(±0.45)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Lee의 병원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3.46점이였다[8]. Kim의 간호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역시 병원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3.23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방문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24].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합리적 유형이 가장 높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가장 낮았다. 합리적 유형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사려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10]. 이러한 특성은 셀프리더십의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기 방향설정과 자기 동기부여를 고양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25]. 이에 비해 직관적 유형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상이나 감정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유형은 합리적 유형에서 보이는 논리적인 대안탐색과 평가과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실패확률이 높다[26]. 본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직관적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셀프리더십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은 합리적 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은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들이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구성원에게로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며 실제로 조직의 기본적인 관리 수단이다[27]. 의사소통 능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8].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구사항에서부터 중재, 평가에 이르기까지 간호제공의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방문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유형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어 온 바 방문간호사가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방문간호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은 중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과 이러한 능력을 확장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방문간호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프로토콜 개발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방문간호사의 업무 효율성과 관계있는 개별적

변수들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수요가 증대하고 역할이 확대되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방문간호사의 능력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방문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지역을 확대하거나 방문간호사의 다른 형태 즉 가정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유형과 의사소통 능력,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Korea Statistics,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2009.
- [2] J. Kim, S. Bae, M. Cho, and I. Choi, "Long-term Trend of an Aging Society Views the Elderly Health Care Policy Issue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5.
- [3] J. Kim, W. Lee, J. Lee, B. Kwon, J. Kim, and S. Moon, "An Analysis of the Work of Visiting Health Care Providers in Public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18, No.1, pp.178-186, 2004.
- [4] H. Ryu, E. Park, Y. Park, K. Han, and J. Lim, "A Workload Analysis of a Visiting Nursing Service based on a Health Center in Seoul,"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33, No.7, pp.1018-1027, 2003.
- [5] J. Jung,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Visiting Nurses of District Health Center in Chonman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Chunnam, 2004.
- [7] B. Spitzberg and W. Cupach,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Springer-

- Verlag, 1989.
- [6] R. Rubin, E. Graham, and J. Mignerey, "A Longitudinal Study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al Education*, Vol.39, No.1, pp.1-14, 1990.
- [8] H. Lee,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Seoul, 2007.
- [9] J. Ba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Types of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9.
- [10] J.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Self-esteem, Decision-making Styles, Stress-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by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06.
- [11] E. Choi, "A Study on Self-leadership, Communication, and their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nam, 2002.
- [12] C. Manz and H. Sims,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the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5, No.2, pp.361-367, 1990.
- [13] V. Harren,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No.2, pp.119-133, 1979.
- [14] H. Ko,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1993.
- [15]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rentice-Hall, 1983.
- [16]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s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il University, Seoul, 2003.
- [17] M. Papa,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loyee Performance with New Technology: A case study," *Southern communicational Journal*, Vol.55, No.1, pp.87-101, 1989.
- [18] L. Navran,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The Family Process*, Vol.6, No.2, pp.173-184, 1967.
- [19] E. Choi,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4.
- [20] E. Kim, J. Lim, and K. Choi, "The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Decision Making Styl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4, No.2, pp.144-147, 2008.
- [21] J. Payne, J. Bettman, and E. Johnson, "Behavioral decision research : a constructive processing perspective," *Psych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3, No.2, pp.489-499, 1992.
- [22] Y. Park, "Relationships of Principals' Self-leadership, Teachers' Self-leadership, Teachers'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chool Organizational Heal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2009.
- [23] K. Park,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Nurs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Gwangju, 2009.
- [24] S. Kim,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10.

[25] C. Neck, G. Stewart, and C. Manz,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31, No.3, pp.278-302, 1995.

[26] J. Seol, "Effects of Values Clarific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Rational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through Development of the Program and Its Applic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17, No.2, pp.15-28, 2004.

[27] M. Vansteenkiste, J. Simons, W. Lens, B. Soenens, and L. Matos, "Examining the Motivational Impact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Framing and Autonomy -Supportive Versus Internally Controlling Communication Style on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Vol.76, No.2, pp.483-501, 2005.

임 지 영(Ji-Young Lim)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03년 9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간호서비스경제성평가, 간호원가분석
간호조직관리

최 경 원(Kyung-Won Choi)

정회원



- 2003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간호학 박사)
- 2006년 3월 ~ 2011년 2월 :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초빙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한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저 자 소 개

김 은 주(Eun-Joo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2011년 2월 : 경인여자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